

농어촌공사 연천·포천·가평지사, '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' 한마음

윤 김태훈 기자 | 2023.05.04 승인



한국농어촌공사 연천·포천·가평지사가 3일 연천군 신서면 행정복지센터 협조를 받아 선정된 수혜 대상 가구를 방문해 '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'을 했다. 농촌 집 고쳐주기 활동은 농어촌공사가 다솜복지재단과 협력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,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 공헌 사업이다.

이날 주거 환경이 취약한 수혜 가구 대상자의 수요 반영해 노후 된 현관과 방문 교체, 벽지 도배 등을 지원했다.

최재철 지사장은 “농어촌공사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/연천=김태훈 기자 thkim65@incheonilbo.com

저작권자 © 인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김태훈 기자 thkim65@incheonilbo.com

김태훈 기자
[다른기사 보기](#)